

민 지 실	음 혜 천	B U D D H A N A R A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신년 기도 법회 및 인등기도 법회
둘째주 토요일 저녁 8 시-12:00 성도재일 용맹 정진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기도 법회 수계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신년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 시 - 오후 1 시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Class Room # 5

새벽기도: 아침 6 시 30 분-7 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정신적 수행은 광명으로 인도하고
수행 게을리 하면 암흑에 이른다네.
이 두 길을 생각하면
현자는
광명으로 이르는 길 택한다네.

Spiritual practice leads to light: lack of
practice to darkness.
Considering the two paths, let the wise man
walk on the path that lead to light.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법전 종정예하 신년법어 발표

모든 번뇌(煩惱)를 깨달음으로 다듬어 내고 우리들의 욕망을 나눔의 선행(善行)으로 바꿈시다

오늘 아침 떠오르는 밝은 태양(太陽)이
지혜와 깨달음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번신(翻身)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이 있고,
만물(萬物)을 변화시키는 향상(向上)의 일구(一句)가 있으니
모든 번뇌(煩惱)를 깨달음으로 다듬어 내고
우리들의 욕망을 나눔의 선행(善行)으로 바꿈시다.
원(願)은 나와 이웃에게 덕(德)을 입히는 이타적(利他的) 소망이요
나눔은 내일의 복전(福田)을 일구는 자기 헌신(獻身)입니다.
올해는 용서하는 마음을 실천합시다.
용서는 미운 사람을 받아드리는 자비의 수용이요,
증오와 원한을 사라지게 하는 사랑의 배품입니다.
올해는 인욕으로 자기를 다스립시다.
분노는 타오르는 불꽃같아 자기를 불태우게 하니,
참고 견디면 백만 가지 장애가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는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나는 착한 것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착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올해는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집시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 허물을 깨닫는 일이고,
뉘우치는 것은 자기 업장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위와 같은 서원(誓願)을 실천하면,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가문(家門)이 안락(安樂)해 질 것이고,
나라에 덕행(德行)이 가득하면 백성(百姓)이 태평가(太平歌)를 부를 것입니다.
화(禍)와 복(福)은 본래 문(門)이 없으나 스스로 업력(業力)에 따라 부를 뿐입니다.

佛紀 二五五四(2010)年 경인(庚寅) 원단(元旦)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道林 法傳

성도 2600 주년을 준비하자

어느덧 기축년을 마감하고 경인년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서서 지난해를 돌아보니 과연 자신을 채찍질 했던 꿈과 비전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꿈꾸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절망도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한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꿈과 이상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올 성도 2600 주년을 맞아 한국불교가 인류를 향한 대각운동을 펼쳐가는 꿈을 꾸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불기(佛紀)는 불멸기원(佛滅紀元)의 준말로 부처님께서 입멸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연대 표시이다. 학술적으로는 이에 대해 많은 이설이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1950년 WFB 창립과 함께 불기 통일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1956년 8월 공식불기를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 2500년으로 정한 공식불기가 1956년부터 적용된 것인가, 1957년부터 적용된 것인가 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불기가 1년 빠르다는 논란이 지난 2006년 제기된 바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의 불기로는 2010년이 2554년이 된다.

불기는 부처님 입멸후로 기산하는 것이기에 부처님 탄생으로부터 따지자면 불기 2500년은 부처님 탄생 2580년이 된다. 따라서 불기 2520년이 부처님 탄생 2600주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불기로 볼 때 1976년이 부처님 탄생 2600년이 되는 해가 맞을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977년 5월 25일 부처님 오신 26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되었던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체신부의 우표발행 설명에도 77년이 부처님 오신 2600주년으로 되어

있다.

지난 2006 년 불기 착오 논쟁 당시 법보신문에서 1970 년에 대한불교에서 불기 표기에 1 년 오차를 일으키면서부터 불기가 1 년 빨라졌다고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통용되는 불기로는 1976 년이 부처님 오신 2600 주년이 되어야 맞지만 무슨 일인지 1977 년을 부처님 오신 2600 주년으로 기념하고 있다.

불기 착오 논란은 종회에서 불기 특위까지 구성하여 조사를 벌였지만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현행의 불기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 공통의 불기에 착오가 있다면 부처님 성도 260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세계적으로 펼칠 때 문제가 될 것이지만 불기 논란은 이 글의 본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자 한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부처님께서 29 세에 출가하여 35 세에 성도하셨기 때문에 불기 2549 년이 출가 2600 년이 되고 2555 년이 성도 2600 주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2005 년이 출가 2600 년이었고 오는 2011 년이 성도 2600 주년이 된다.

어찌 보면 불교는 부처님의 성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물론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는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연원이 따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연히 부처님의 성도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성도 2600 주년을 간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교가 세계종교로서 인류의 마음에 널리 펼쳐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과 성도 이후 전법을 통해 이루어진 불교를 가벼이 보아선 안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성도로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그 이전 까지 인간은 신에 의해 속박된 존재에 불과하였다.

부처님의 깨달음에서부터 인간은 대자유의 존재가 되었고 너와 나, 나와 남이 없는 불이의 존재가 되었다.

역설적으로 부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부처가 없는 세상'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대자유인이 되는 세계를 꿈꾸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처님 성도 2600 주년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것, 모든 존재가 큰 자유를 찾아 깨달음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계기로 만드는 새로운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불교가 지금 시점에서 꿈꾸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필자의 헛된 꿈일까? 이제 해가 바뀌면 1 년 앞으로 다가올 부처님 성도 2600 주년. 그 해를 모든 인류를 향한 희망과 자유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커다란 꿈을 우리가 함께 꾸려나가길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고자 한다.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불교 포커스에서 발췌-

승가교육에 'wind of change' 불어온다 출가전 과정 개설-승가고시에 논술 등장

조계종 교육원, 12 월 16 일 '승가교육 발전계획' 발표: "행자부터 교수사까지 '시대에 맞는 승려' 길러낼 것"

조계종 승가교육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 월 16 일 오후 3 시 총무원 2 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원 승가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원은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전략과제로 내세우고, 행자 입문 교육과정부터 특수교육의 영역까지 교육과정의 현대화를 꾀하는 '5 대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출가행자 입문 교육과정의 개설이다. 교육원은 출가행자가 되기 전 3 박 4 일간의 일정으로 승려로서의 다짐, 예절, 목표를 점검하는 '출가행자 입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행자교육원에 들어가기 전 기초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출가를 권유하는 홍보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종단과 본말사 홈페이지, 사찰 종무소에 '출가를 권하는 글'을 붙이고, '출가를 권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나 각종 매체에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현재 전국 사찰에서 출가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찰에 가만히 앉아서 출가자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출가의지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출가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이런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은 강원으로 대표되는 기본교육과정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원은 승가고시에 처음으로 '논술' 시험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승가고시에서도 서술형 주관식이 출제된 적이 있지만, 시험자의 사유와 철학을 담아야 하는 논술형 출제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시로 제시된 논술 문제들이 승려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이나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보니, 강원의 커리큘럼의 변화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내년 3 월에 치러지는 5 급 승가고시부터 논술 시험을 적용해, 점차 4 급·3 급·2 급 승가고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은 당장 3 개월 뒤에 치러질 5 급 승가고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시 논술문항들을 공개했다.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40 대 가장이 육체적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을 때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겠나', '산업화·정보화 시대에 한국불교를 어떤 실천행과 어떤 포교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최근 염불수행이 강조되고 있는데, 대승불교의 타력신앙과 기독교와 같은 서구의 종교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나' 등 현장 포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논술문제에 담아 승려들의 사유의 폭, 공부의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 교육원의 설명이다.

또한 5급 승가고시 우수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에 진학할 시 장학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학인들의 수가 감소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사회상을 반영해, 승가대학 운영사찰 중 일부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각 사찰들과 논의 중에 있다.

또 한가지 변화는 재교육과 특수교육이 처음으로 신설된다는 점이다. '재교육'은 이미 승려가 된 이들의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3급 혹은 2급 승가고시를 치르게 될 경우 몇 학점 이상의 재교육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이나 태화산 연수원을 적극 활용해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교육 강좌로 개설되는 과목들은 '사찰모금 방안마련 과정', '설법전문가 과정', '불교-인문학 통섭 과정', '빨리어 과정', '생태사찰만들기 과정', '불교사찰광고홍보 과정', '건축불사 실제 과정' 등 현재 말사주지이거나 종무원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익한 내용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어산학교', '각종 불교관련 학교', '영어특수학교', '불교미술학교', '다도학교' 등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해 종단에서 필요한 특수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교수사와 같은 승가교육 교수인력을 배출하는 전문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승려들 중 2~3%만 이수하고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원철 스님은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종단의 사상적 토대가 튼튼해지고, 불교사상의 사회적 응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원이 이와같은 원대한 포부를 세웠지만, 이 개편안의 성공여부는 사실상 지방의 '교구본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의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사찰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인지, 강원 커리큘럼 확충에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인지, 우수한 인재들을 교수로 영입해 커리큘럼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케 할 것인지가 이번 '교육 개혁'의 성공 키워드라 하겠다.

-미디어 붓다에서 발췌-

유럽인권법원 “학교내 십자가는 종교자유 침해” “신앙 맞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 위반” 원고 승소 판결

공립학교 내 십자가는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이탈리아 언론매체들은 “핀란드 출신 소일레 나우시 씨가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종교 자유를 침해하므로 제거해 달라며 유럽인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학교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자녀를 자신들의 신앙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유럽인권법원은 “(원고) 나우시 씨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이탈리아 정부는 5000 유로(한화 870 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은 이탈리아 공립 교육기관 교실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그동안 이탈리아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 수차례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탈리아 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23년 전(前) 탕화 봤을 때 심장 멎는 전율 느꼈죠"

탕화 그리는 브라이언 베리, 화관문화훈장 받아: 5년간 4번 수술하면서도 손에서 붓이 떠나지 않아

1967년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스물세 살 미국 청년이 평화봉사단으로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 도착했다. 변변한 화장실 하나 없는 시골 마을. 함께 온 동료들은 기겁했다. 청년은 달랐다. 순박한 그곳 사람과 비릿한 바다 냄새가 웬지 정겨웠다. 봉사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청년은 특 쏘는 흥어 냄새, 혼을 울리는 팽파리 소리를 잊지 못해 결국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을 다시 찾았다.

그로부터 40여년, 호기심 많던 청년은 불모(佛母·불화나 불상을 만드는 사람)가 됐다. 온종일 방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탕화를 그린다.

'2009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미국인 브라이언 베리(Barry·64)씨 이야기다. 오랜 세월의 한국 사랑이 결실을 맺는 자리였지만 그는 지난 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훈장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암 투병 중이라 한곳에 오래 앉아 있기도, 오래 이야기하기도 힘들다. 인터뷰도 수차례 요청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던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30년 지기인 디자이너 김현(60)씨를 통해 "나같이 다 떨어진 양코배기한테까지 (한국 정부가) 신경 써줘 고맙다"는 수상 소감과 함께 지난 세월 이야기를 전해왔다. 김씨는 88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를 디자인한 유명 디자이너다. 1970년대 대우그룹에서 일하며 알게 된 두 사람은 지금도 서울 정릉의 아파트에 이웃하고 산다.

'''부형'(김씨는 스스로를 '부안 부씨'로 칭한다는 베리씨를 이렇게 불렀다)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로도 부족해요. 그

이야기를 다 어찌 전할 수 있을지."

베리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은 평화봉사단 시절 만났던 변산의 하숙집 아주머니였다. 베리씨는 독실한 불교신자인 아주머니를 통해 불교라는 새로운 세상에 빠져들었다. 79년부터 98년까지 대우그룹에 근무하면서 대원정사 불교대학에서 불경을 공부했다.

탱화와 운명적으로 만난 것은 86년 한 미국 건축가의 통역을 맡아 서울 신촌 봉원사에 갔을 때였다. 여러 패턴이 복잡하게 엉켜 있으면서도 전체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단청을 보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멎고 온몸이 굳어오는 듯한 전율, 부처의 계시 같았다. 그 길로 바로 봉원사에 있던 불교 미술의 거장 만봉 스님께 달려가 탱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김씨는 "2006년 만봉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미완성작이 몇 점 있었는데 유족들이 가족회의를 해서 작품 완성을 '부형'에게 맡겼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고 했다. 지난 5년간 4번의 수술을 거치며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손에선 붓이 떠나지 않았다. 몸의 고통이 더할수록 그는 부처를 그린다. 그 길이 탱화로 만든 한국과의 인연, 부처와의 인연에 대한 보답이라 그는 믿는다.

부언: 브라이언 베리씨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불국사) 신장 탱화를 그렸고, 앞으로 조지아주 지역에 창건될 애틀랜타 부다나라 신장 탱화도 조성이 모두 끝난 상태로 애틀랜타에 신장 탱화가 모셔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BUDDHANARA TEMPLE (佛國寺) 경인년 정초 칠일 기도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회귀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불자님 가정과 좋은 인연 맺게 해주신 부처님 전에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 불기 2554년 (2010년) 2월 15일 (음력 1월 2일)에 기도를 입재해서 불기 2554년 (2010년) 2월 21일 (음력 1월 8일) 까지 경인년 정초 칠일기도를 봉행 합니다. 기도 회향은 1월 21일은 셋째주 일요일 전법기도 법회와 같이 봉행합니다.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정초 칠일 기도 동참비는 \$100.00 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알아두면 유익한 불교 관계 홈페이지 주소:

불교 TV 방송: www.btn.co.kr

불교 라디오 방송: www.bbsi.co.kr

대한불교조계종: www.buddhism.or.kr

불교신문: www.ibulgyo.com; 불교포커스: www.bulgyofocus.net

불보종찰 통도사: www.tongdosa.or.kr; 법보종찰 해인사: www.heainsa.or.kr; 송보종찰송광사:

www.songgwangsa.org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2009 년 12 월부터 새로운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Class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매달 2 제주 일요일마다 갖는 애틀랜타 부다나라 정기법회 이외에도 신도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도님 집에서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회시간에 공지하겠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2010 년 1 월 22 일은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성도재일 입니다. 부다나라에서는 성도재일을 기념해서 부처님처럼 6 년간 용맹정진을 할 수는 없지만 하루라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용맹정진을 합니다. 1 월 16 일 토요일 저녁에 용맹정진을 자정까지 하고 다음날인 1 월 셋째주 법회에는 모두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고 범행을 받는 수계식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에서 갖는 수계식에는 참석 하시지 못하지만 불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신도님들은 1 월 둘째주 애틀랜타 정기 법회때 접수를 받습니다.
- 경인년 2010 년 2 월 15 일 기도를 입재해서 2010 년 21 일 셋째주 일요일 기도 회향하는 정초 7 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2009 년은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일이 보태져서 더욱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였습니다. 신도님들 모두 힘들지만 기도와 정진,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의 힘으로 모든 위기들을 이겨 냈으면 합니다.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합니다.
소원 성취 하십시오.
- 현재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에는 2009 년 12 월 24 일부터 3 월 17 까지 약 두달 반 동안 현재 포르투갈 마프라 프로 축구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능인 신동윤 거사님이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발목 부상으로 잠시 미국 부다나라에서 심신을 추스리고 팀으로 복귀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3 월 경에 포르투갈 프로팀으로 복귀 하거나 새로이 영국 프로 팀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다나라 신도님들은 능인 신동윤 선수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 매달 3 제주 전법 기도 법회때 마다 새로운 불교 찬불가를 배웁니다. 현재 금전적인 형편이 되는테로 새 피아노 나 중고 피아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당에 피아노가 놓여 집니다. 피아노가 마련되는 데로 찬불가 연습에 들어 가니 신도님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 바랍니다.

2009 년 12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91 번 병인생 유영은, 371 번 을사생 최인협, 372 번 계축생 김미현, 373 번 을해생 최일석, 374 번 정축생 최윤희, 375 번 갑신생 최이조.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토로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관세음 보살 보문품 시주: 임정숙, 공덕행 김태희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법당에 놓여질 피아노 시주 받습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팀장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